2022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로마서 5 장부터 8 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13

신약의 희년의 실재 안에 살기 위해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결을 배움

성경: 레 25:8-17, 사 61:1-3, 눅 4:16-22, 롬 8:2, 16

I. 레위기 25 장 8 절부터 17 절까지에 나오는 희년은 이사야서 61 장 1 절부터 3 절에 예언으로 기록되었고, 누가복음 4 장 16 절부터 22 절까지에서 실재로 성취되었다.

A. 희년에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다. 그것은 곧 각 사람이 잃어버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 레 25:8-17.

1. 희년에는 자신의 소유지 곧 좋은 땅에서 할당받은 자기의 몫을 판 모든 사람이 그 땅을 되찾기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었고(레 25:10, 레 25:13, 레 25:13), 자신을 노예로 판 모든 사람이 자유를 되찾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레 25:39-41).
2.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유를 되찾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신약의 희년에 믿는 이들이 자신들이 잃은 신성한 소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신들의 신성한 가족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 엡 1:13-14, 요 8:32, 36, 비교. 시 68:5-6.

B. 구약의 예표에서 희년은 일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 예표의 성취에서 희년은 신약시대 곧 은혜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 이 시대는 죄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때(사 49:8, 눅 15:17-24, 고후 6:2)이며, 죄의 속박 아래 억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을 누리는 때(롬 7:14-8:2)이다.

II. 신약 시대는 황홀경의 시대이고, 그리스도인은 황홀경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도 황홀경 안에 있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고후 6:2, 5:13-15, 행 11:5, 22:17, 시 43:4 상, 51:12, 벧전 1:8, 사 12:3-6.

A. '희년'은 염려나 근심이 없고, 걱정이나 심려가 없고, 부족이나 결핍이 없고, 질병이나 재난이 없고, 그 어떤 문제도 없으며, 오히려 모든 혜택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즐겁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며,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되어 편안하고 활기차며 기뻐한다 — 빌 4:6-7, 11-13, 시 103:1-5.

B.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참된 희년이신 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에게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을 갖고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받아 참된 자유와 안식을 가질 수 있다 — 행 26:18, 엡 1:13-14, 골 1:12, 마 11:28, 요 8:32, 36.

C.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희년이 되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고 그분에 의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지적으로 희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 레 25:11-12, 롬 8:2.

1.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둔다면 이것은 우상숭배이며 그 끝은 비참하다 — 요일 5:21, 비교 겔 14:3, 5, 6:9.
2.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우리가 그분에 의해 산다면 모든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문제이고, 아무 것도 희년이 아니다.

D.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으로 얻은 후에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온갖 종류의 상황을 대할 때 우리를 잠잠하게 하고 염려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물이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다 — 빌 3:8-9, 4:5-8, 11-13.

1. 아담은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누리는 몫을 잃어버렸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소유와 누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지체를 죄에게 팔아 죄의 노예들이 되었다 — 엡 2:12, 롬 7:14, 6:19.
2. 인간 생활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지나갈 것이다. 인생의 참된 상태는 허무 중의 허무이며 공허중의 공허, 곧 바람을 잡는 것이다 — 시 90:10, 73:14, 16-17, 25, 전 1:2-11, 14.

E. 믿는 이들이 은혜의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희년을 충만하게 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희년을 가장 충만하게 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빌 3:14, 계 22:1-2 상.

F. 레위기 25 장 10 절의 '희년'이라는 단어는 '외치는 때' 혹은 '숫양 뿔 나팔을 부는 때'를 뜻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쁘게 받아들이시기에 좋은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며 나팔을 부는 것이다 — 고후 6:2, 사 61:1-3.
1.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의도는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소유, 사람의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었다(창 2:9, 창 13:12-15, 시 16:5, 시 90:1).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였으며,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창 3:24, 창 4:16, 엡 2:12) 자신을 죄와 사탄과 세상에게 노예로 팔았다(요 8:34, 롬 7:14 하, 갈 4:8, 딛 3:3, 요일 5:19 하).
2. 타락한 사람에게는 참된 거처가 없다. 그들은 집 없이 떠돌아 다니며 방황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참된 거처이시기 때문이다 — 시 90:1, 창 28:17-19, 요 15:4, 마 11:28.
3. 하나님의 신약의 구원은 타락한 사람이 자신의 신성한 소유인 하나님께 돌아가고(행 26:18, 갈 3:14, 엡 1:14, 골 1:12, 눅 15:12-24), 죄와 사탄과 세상에게 노예 노릇을 하는 데서 해방되어(요 8:32, 롬 6:6, 롬 6:14, 롬 8:2, 히 2:14-15, 요 12:31), 자신의 신성한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갈 6:10, 엡 2:19)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통을 누리게 한다(고후 13:14).

III. 우리는 오직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해방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약의 희년의 실재 안에서 살 수 있다(롬 8:2, 눅 4:16-22). 오직 그분을 누리는 이들만이 죄를 짓지 않고 참으로 자유하며 속박에서 해방되고 풀려나 자유로운 생활을 한다(요 8:36).

A.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다면 많은 것에 묶이게 될 것이다. 작정하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 주님께 와서 그분을 먹고 누려야 한다 — 고전 1:9, 계 2:7, 사 55:1-2.

B.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활과 일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요 6:57, 63, 고후 3:3-6, 요일 5:16 상).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고, 옳고 그름의 나무는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법이다(창 2:9, 롬 8:2, 6).

C. 생각을 영에 둠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들만이 죄를 일삼지 않고 참으로 자유롭다.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신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희년의 다양하고 풍성한 모든 방면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 요 8:11-12, 24, 28, 31-36, 롬 8:2, 6, 16, 빌 1:19.

D. 우리 속에서 희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난과 포로 됨과 눈멂과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 전 1:2, 14, 3:11, 빌 3:8, 벧후 2:22, 눅 12:21, 계 3:17.

E. 바울은 주님에 대한 첫째 가는 사랑으로 자신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켠' 사람이었다 — 롬 1:9, 5:5, 8:35-39, 계 2:4-5.
1.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신 그분에 관해 모든 것과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이다 — 골 1:18 하, 10, 고전 2:9-10.
2.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에게서 나오실 때 그것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봉사이다. 우리는 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며, 교회들 안에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첫째 가는 사랑을 드린다 — 아 7:12, 고후 6:1 상, 빌 3:3, 막 12:30.

F.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갖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이시고,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온다.
1.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지 않으면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없다. 자유는 해방, 곧 모든 속박과 무거운 짐과 억압과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 — 요 8:32, 36, 갈 5:1, 고후 3:17.
   a.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개밥과 배설물과 똥이다 — 빌 3:7-9, 비교 벧후 2:22.

b. 사탄은 '똥더미의 주'를 의미하는 바알세불이라 불린다. 이 단어는 '파리들의 왕'을 뜻하는 바알세붑에서 유래했다. 파리들이 똥을 먹는 것처럼, 사탄은 죄인들을 끌고 다니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다 — 마 10:25, 12:24, 27, 왕하 1:2.

2.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박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 먼저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사탄은 우리의 죄들을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와서 거한다. 그 결과 사탄은 우리의 불법적인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만 짓는 정도로까지 그의 포로들이 되었다 — 요 8:34, 롬 7:14, 요일 5:19.

G. 우리는 그리스도께 정복되어 그분의 포로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움직임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찬 영광을 축하하는 것이다(고후 2:12-14). 그리스도는 사탄의 포로였던 우리를 구출하셨다(시 68:18, 엡 4:8), 이제 우리는 그분께 속했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시며 주인이시고(마 23:8, 출 21:6),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다'(요 8:36, 비교 고후 10:3-5).

IV. 희년의 생활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 우리의 유산과 참된 자유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이다.

A. 인생의 세 가지 수고, 곧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수고와 염려의 수고와 고난의 수고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다 — 롬 7:24—8:2, 빌 4:5-7, 고후 12:9.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누림으로 충만한 생활, 즐거움과 찬양으로 충만한 생활이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충만하게 누릴 때 그분은 우리의 희년이 되신다. 이기는 생활의 어조는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조이다 — 살전 5:16-18, 시 50:14, 23, 106:12.

C. 희년의 생활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을, 곧 그리스도 자신을 취하는 생활이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과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다스리신다 — 요 6:16-21, 골 1:17 하, 18 하.

D. 바울은 희년 안에 사는 비결,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얻는 비결을 배웠다(빌 3:8-9).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얻으시고, 저를 소유하십시오. 저의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저는 다만 당신을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 빌 4:5-7, 11-13.

E.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려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신성한 역량을 가진 생명의 영의 내적인 법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라는 한 길을 가져야 한다 — 렘 32:39.

V. 로마서 8 장에 있는 희년의 실재이신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로마서 12 장부터 16 장까지에 묘사된 온전하게 된 하나님-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이 실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A. 하나님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신다 — 롬 8:2, 6, 10-11, 계 22:1-2 상.

B.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조성하여 온갖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한다 — 골 2:19, 엡 4:11, 16, 롬 12:4-8.

C.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의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기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살 수 있게 되어, 하나님으로 조성됨으로, 그분의 표현을 위한 충만이 되는 그분의 증가와 확산이 된다 — 엡 1:22-23, 3:19-21.

© 2022 Living Stream Ministry